

국립 대전 현충원

CWHS
국토 순례

설립 경위

1955년 7월 15일

일제침략과 6·25전쟁, 월남전 등에서 활약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동작동에 설립한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 국립묘지 설치검토를 지시

1976년 4월 14일

충남 대덕군 유성읍 갑동리(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의 현 위치에 대전국립묘지를 설치할 것을 결정

1976년 5월 11일

국방부가 지방 국립묘지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79년 4월 1일부터 공사를 본격 착수

1985년 11월 13일

전체 면적 약 322만㎡의 현 국립대전현충원을 준공

공사기간 중이던 1982년 8월 27일부터 안장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국립대전현충원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을 모시고 그 분들의 생전의 업적을 추모하고 있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은 2006년 1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뀌게 되었다. 만족시켜 드립니다.

관람 유의 사항



Daejeon National Cemetery

국립 대전 현충원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100만 평의 대지 위에 13만 8천여 위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신 보훈의 성지입니다.

국립 대전 현충원은 국가를 위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품격있는 안장의식과 참배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국 선열과 후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오시는 연간 3백만 여명의 참배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묘소에 개인 돌화병 등의 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묘역 참배 시 낡은 조화, 각종 쓰레기 등은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남은 음식물은 되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쓰레기의 불법 투기는 엄 금합니다.(감시용 카메라 작동 중)
-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완동물의 원내 출입을 금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에서 향·촛불을 피우는 행위 및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며, 화재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